

# “해양에너지, 투기 자본 맥쿼리에 넘기면 안된다”

### 광주시민단체대책위 반대 성명 “맥쿼리에 매각된 시민만 피해” 광주시·의회 “전문기관이 운영을”

맥쿼리가 광주 지역에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 (옛 해양도시가스) 인수에 나서자 광주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참여자치21·광주경실련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투기자본의 해

양에너지 인수 반대와 시민적 통제를 위한 대책위(준)는 25일 성명을 내고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 장치도 없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GS에서 운영하던 해양에너지는 사모펀드 회사인 ‘글랜우드프라이빗 에쿼티(PE, 이하 글랜우드)’로 매각됐다. 글랜우드가 인수한 이후, 해양에너지의 영업 이익은 2018년 165억 원에서 2019년 216억 원, 지난해 225억 원으로 2년 연속 늘어났다. 그러나 글랜우드는 인수 후 3년 만에 해양에너지를 다시 매물로

내놨다. 맥쿼리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매각 가격은 820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글랜우드는 3년만에 2000억원의 차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라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해양에너지 운영과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매년 100억원 넘게 발생하는 배당 이익과 매각 때마다 수천억원씩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막대한 이익을 결국 투기 자본이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특히 “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

영 과정에서 자신들만 이익을 챙기고 운영사는 꺾기로 만들었으며, 시민들에게 수익률 이상의 요금부담을 전가하고 광주시로부터 지원금을 챙겼다”며 “이 과정에서 소속 노동자는 외주화해 고용 환경은 더욱 나빠지게 한 기업인 만큼 그들이 해양에너지를 인수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앞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시가스 사업은 필수 공공재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에너지 전문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에너지밸리 활성화 혁신도시 이전 협업사업 전남도·한전 본격 추진

전남도가 한국전력과 함께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개발을 확대하는 등을 위해 모두 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한전, 기업 육성 전문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과 협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를 지난 17일부터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밸리 내 투자 실행기업이다. 연구개발(R&D) 사업과 자금 지원, 판로 개척, 기업 자생력 강화, 인력 양성 등 7개 사업을 통해 71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밸리 플라자(www.energyvalley.co.kr)나 각 기업 육성 기관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남도 낚시여행’ 발간 낚시명소·연계 관광지 소개

전남도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낚시를 활용해 새로운 테마여행을 담은 ‘남도 낚시여행’을 발간했다. ‘남도 낚시여행’에는 전남의 안전한 낚시여행을 위한 대표적인 낚시 명소 29개소와 낚시어선 출항지 정보, 금어기 등 필수정보뿐만 아니라 연계 관광지까지 담았다. 낚시여행은 그동안 여행상품 운영에 한계점이 있었다. 갯바위 등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지는 선입견 때문에 자녀 등 가족과 함께 즐기지 못하고 몇몇 소수층만 한정해 즐겨왔기 때문이다. 주요 대표 낚시터 가운데 고흥 거금해양낚시공원은 해양낚시터 외에 해상펜션과 개매기 체험장, 소공원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졌다. 하룻밤 머물며 천혜의 해상공원과 바다 위에 만들어진 부잔교에 파라솔을 펼쳐 낚시를 즐기다 보면 득랑만의 그림 같은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여수 돌산대교 야경과 짜릿한 손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돌산해양낚시공원, 산림트레킹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진도 수품항해양낚시공원, 인근 강진 마량 수산시장에서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어 고기를 못 잡아도 부담 없는 강진 가우도복합낚시공원, 한반도 최남단 남해바다를 빼개 삼아 글램핑을 할 수 있는 해남 땅끝낚시터 등도 가족 낚시에 제격이다. ‘남도 낚시여행’은 전남의 관광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남도 관광정보시스템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 커뮤니티 코너 관광웹진 보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홍보물이 필요하면 관광자료 신청 코너에서 해당 자료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무등산 난개발 막자” 무등산 난개발 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를 위한 민·관·정 위원회 1차 대시민 토론회가 25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대구와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본격화

### 오늘 국회서 공동 유치 계획 발표

광주시가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시와 2038년 9월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본격화 한다. 막대한 대회 시설비 우려 등에 대해선 경기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만들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 동안 코로나19 병상 연대, 달빛 내륙철도 등 연대와 협력을 다져온 광주와 대구가 이번에는 아시안 게임 유치에 뜻을 모았다”며 “26일 대구시와 국회에서 공동유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체육계, 경제계, 지역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 의견 수렴도 거쳤다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주관으로 4년마다 열리는 하계 아시안게임은 45개국 1만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종합스포츠대회로 국내에서는 서울(1986년), 부산(2002년), 인천(2014년)에서 열렸다. 다만 일각에선 인천 하계아시안게임에서 시설비 등으로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한 사례를 들어 이른바 개최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대회의 가성비’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이미 광주와 대구는 2002년 월드컵을 개최했으며 대구는 200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1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광주는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면서 특히 다양한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대부분의 경기 시설도 이미 갖추고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대회 개최 역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추정 소요 예산으로 일단 시설비는 기

존 시설의 리모델링에 집중해 최소화할 계획이며, 운영비는 국비지원 등을 통해 5000억원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대구시와 공동 유치효과에 대해선 ▲기존 인프라와 대회 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 ▲스포츠·교통 등 인프라 확충과 도시브랜드 제고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동반 성장 ▲동서 화합을 통한 국민 대통합 실현, 지역 균형 발전 ▲양 도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전망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오는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26년 시의회 대회유치 의결 및 대한체육회에 대회유치 신청 및 결정, 2027년 정부 타당성 조사 심의, 2028년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신청 및 개최도시 결정 등의 일정을 밟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용섭 시장 공약 이행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

이용섭 광주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하는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받았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 결과 광주는 대구, 인천, 경기, 충남, 경남과 함께 SA 등급에 선정됐다. 2019년부터 이어진 최우수 등급 판정으로,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공약 실행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광역단체는 광주와 경기 2곳뿐이다. 이번 평가는 주민 소통,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지표를 근거로 삼았다. 광주시는 ‘바로 소통’, ‘여론조사’, ‘응답하라 용섭 씨’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공약 지도를 개설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225개 공약사업 중 에너지 신산업 특화 산업 육성, 규제 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 광주 관광 전담 기구 설립 등 127개 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시장은 “광주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면서 “남은 임기도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대광새마을금고 창립 40주년 정기예탁금특판

# 1년 2.0% (200억한도)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 MG 대광새마을금고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